

# ‘완전한 회복’ 앞둔 저축銀... PF대출 등 리스크 대비해야

## 저축은행 사태 10년

### 4 가파른 성장, 양극화 해소 과제(▲)

작년 상반기 부동산 PF대출 6.5조  
저축銀 사태 후 4.3조서 2.2조 증가  
“대규모 부실화 우려, 예의 주시를”

79개 은행 누적당기순익 1.1조 중  
SBI·OK 등 상위 5개사 46% 차지  
M&A규제 완화... 양극화 해소 절실



저축은행중앙회 통합 모바일뱅킹 SB특목 이미지.

/저축은행중앙회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 업계는 약 10년의 회복기간 동안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수신크, 총자산 등이 사태 이전의 최대 규모까지 근접하면서 ‘완전한 회복’이 머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저축은행 사태의 주 원인이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과거의 사태를 재현하지

않기 위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대두된다.

또 올 상반기 저축은행 인수·합병(M&A)과 관련한 규제 개선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매년 심화되고 있는 저축은행 규모 차이에 따른 양극화 문제도 업계의 화두다.

31일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은 지난해 3분기 기준점으로 총 수신크 72조8258억원, 총 자산 85조2961억원까지 각각 성장했

다. 저축은행 사태 이전의 최대 규모였던 2010년 상반기 집계를 살펴보면 당시 수신크는 76조4222억원, 자산이 86조3885억원이다.

하지만 저축은행사태를 촉발한 부동산 PF 대출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시 늘어나고 있다. 물론 10년 전보다 저축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이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고 전체 대출과 비교하면 비중이 크지 않다. 하지만 과거 부실 사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예민한 관

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 사태 직후 4조3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당시 유 의원은 “부동산 PF 대출은 부동산 경기와 밀접하다”며 “대규모 부실화가 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PF 대출 추이에 대한 건전성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1년 사태 이후 파산한 저축은행 PF 사업장은 총 758개나 된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도 간간히 입장을 보인다. 지난해 9월 발표된 금융당국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적받는 위법사항도 문제다. 저축은행은 지난 2017년

12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고 이후 꾸준히 건수가 증가, 지난해에도 23건이 접수됐다.

특히 올해는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도 앞두고 있고 M&A 내용을 담은 규제 완화 방안도 발표될 예정인 만큼 저축은행 업계가 리스크 관리에 더 세심하게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축은행간의 규모 양극화 문제 해소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실제 현재 79개 저축은행의 총 누적당기순이익(1조139억원) 중에서 상위 5개사(SBI·OK·한국투자·페퍼·웰컴저축은행)가 46%를 차지한다. 약 절반 가까운 규모를 대형사가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양극화 문제와 관련한 해선 올 상반기 내 예정된 M&A 규제 완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행 규제는 2011년 사태 이후 도입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저축은행이 지난 10년간 성장한 규모를 감안한 규제 완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n6326@metroseoul.co.kr

##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판매한도 상향

중기부-소진공, 한달간 특별판매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좀더 싸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은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한다. 온누리상품권은 하나은행을 포함한 전국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또 2019년부터 선보인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1년 내내 할인율 10%, 월 구매 한도 100만원(기존 70만원)을 적용해 판매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스마트폰 앱에서 상품권을 구매·결제·선물이 쉬운 점을 고려해 설 명절 기간에 온라인에서 10만원, 온·오프라인에서 50만원 이상 사용 시 추가를 통해 각각 모바일 상품권 3만원, 5만원 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상품권 구매와 사용이 편리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김승호 기자 bada@

## 시몬스 “설 명절, 숙면을 선물하세요”

침대·침구 등 수면건강 선물 선택

시몬스가 설 명절을 앞두고 풍성한 수면건강 선물을 선보인다. 소형에서 대형 사이즈 침대부터 베개, 침구, 프레임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31일 시몬스에 따르면 잠을 설치는 부모님을 위한 설 선물로 대표 매트리스 컬렉션인 ‘뷰티레스트(Beautyrest)’의 대형 사이즈 프리미엄 매트리스를 추천한다. 노년층에선 숙면이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매의 위험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될 정도로 잠이 중요하다. 가로폭 170cm~190cm의 킹 사이즈 뷰티레스트 매트리스는 부모님에게 여유롭고 쾌적한 잠자리를 선사해 숙면을 유도한다. 시몬스의 새해 첫 할인 이벤트인 ‘시몬스 리빙페어’를 통해 프리미엄 매트리스 최대 15% 할인



은 물론 프레임과 룸 세트에서도 1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이번 구정 특별한 선물로 제격이다. 여기에 시몬스의 장기 카드 할부 무이자 프로그램인 시몬스 페이를 활용하면 최대 36개월 무이자 혜택까지 추가된다. /김승호 기자

## 상반기 전자·반도체 일자리 증가 전망

고용정보원, 상반기 일자리전망 발표  
조선업종 감소, 기계 등은 전년수준

올해 상반기 전자·반도체 업종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조선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기계·섬유·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건설·금융보험 업종의 경우는 전년 상반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전자업종의 경우 전자·IT 성장세 회복과 5G 서비스 확대에 따른 전자 부품(메모리, 시스템 및 OLED 패널 등) 수요 증가로 소폭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지효과와 5G 스마트폰 교체 수요의 본격 확대에 3년 연속 침체됐던 휴대폰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면 업무와 서비스 확대에 컴퓨터

와 주변기기 시장 또한 전년에 이어 소폭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전자 분야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만1000명(1.6%)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역시 세계 반도체 시장이 모바일, 서버, 컴퓨터 등과 관련된 수요 확대에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0.2% 증가할 것으로 보여 역대 2번째 1000억달러 이상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시장이 개선됨에 따라 설비투자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도체 생산과 수출이 증가하고 관련 설비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반도체 업종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000명(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종의 경우 올해 상반기 고용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6000명(-5.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의 확산, 글로벌 봉쇄 심화, 유가하락 등으로 지난해 전세계 선박 수주량은 전년 대비 33.9% 감소했다. 올해는 EU의 온

실가스 배출권 규제, EEXI 시행 예상 등으로 발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2020년 수주량 감소 영향으로 2021년 일감이 감소했고 신규 선박 발주가 생산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기계 업종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정책 등으로 설비 투자와 기계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백신 상용화 전까지 경기 불확실성이 존재해 성장세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 업종 수출은 세계경기 회복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글로벌 경쟁 심화와 중국 제품의 품질 향상에 따른 국산 제품 대체 영향으로 증가폭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됐고,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철강재 내수는 올해 회복세가 예상되나 동남아와 인도 등 철강시장 침체로 인해 수출 침체가 예상돼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코트라, 올 ‘디지털 혁신’ 원년 선포

로드맵 발표... “국내외까지 확산”

KORTA(코트라)가 2021년을 ‘디지털 혁신’ 원년으로 선포하고, 디지털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권영오 코트라 사장은 31일 “앞으로 3년간 서비스의 30% 이상을 디지털로 전환하겠다”며 “로드맵을 본사뿐만 아니라 국내외까지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드맵은 올해부터 3개년간 추진할 비전과 전략, 세부 실행 과제 등이

담겼다.

비전은 총 158건의 공모를 거쳐 ‘코트라의 디지털 혁신, 고객의 꿈을 실현합니다’로 선정됐다. 고객가치, 비즈니스 모델, 프로세스 등 3대 과제 아래에 10대 추진 방향과 51개 세부 실행 과제가 구성됐다.

우선 고객 입장에 맞춘 편리한 옴니채널 서비스를 구현한다. 원하는 정보를 한눈에 쉽게 찾아보고,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사업은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는 무역·투자사업에서 다양한 방식의 온·오프라인 연계(O2O)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바이코리아 플랫폼의 이커머스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바이코리아 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2025년까지 소상공인을 포함한 디지털 고객 10만개 사에 품목별·시장별 유망품목을 포함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해외전시회도 업종별 온라인 상설관을 구축해 한국의 대표 전시회로 키울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